

Solutia, PBC 소송 6억달러에 합의!

Monsanto가 3억9000만달러 부담 ... Solutia 신용등급 하락 우려

Solutia와 전 모기업 Monsanto가 앨라바마주 Anniston의 PBC(Polychlorinated Biphenyl)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억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Monsanto는 2003년 말까지 현금 3억9000만달러를 제공하고 Solutia는 10년 동안 5000만달러를 지불하고 나머지는 보험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PCB 소송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파산위기에 처했던 Solutia는 영업손실, 다른 PCB 소송 및 막대한 부채로 인한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진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Monsanto도 Solutia와의 관계에 따른 장기적인 소송 위험이 해소됐다고 평가하고 있다.

1997년 Monsanto가 분사되면서 Solutia가 Monsanto의 환경관련 부채를 맡게 됐으나 Solutia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Monsanto가 부채를 해결해야 한다. Monsanto는 과거 Pharmacia에 매각됐으나 Pharmacia가 Pfizer에 매각되면서 독자적인 기업으로 분리됐다.

Pfizer가 Anniston 지역의 7500만달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로 합의함으로써 Pfizer의 의약품이 무상 또는 저비용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Monsanto는 Solutia와 관련된 부채로부터 Pharmacia를 보호해주기로 합의했으나 Pharmacia와 Pfizer도 소송에 연루돼 있기 때문에 Solutia와 Monsanto가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부채를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Monsanto는 Solutia 주가가 상승하면 주식을 상환해 소송금의 일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olutia 주식 1000만주를 소송 판결이 발표되기 전 5일 동안의 평균가격인 주당 약 90센트에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Solutia 소유권에 변화가 생기거나 주가가 10달러 이상 상승하면 주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권한이 과기된다. 2003년 8월19일 소송합의가 발표된 이후 Solutia 주가는 4배 상승했으며 8월25일 3.8달러에 마감됐다.

Solutia는 8월11일 500 PCB 소송에서 손해배상금 1억100만달러의 판결을 받았는데, 400개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있었으며 개인적인 손해배상 및 잠재적 피해보상과 관련한 소송은 아직 진행중에 있다. 또 다른 소송은 10월 재판에 들어갈 예정으로 30억달러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Solutia는 첫 번째 소송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나 몇 년 후에도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PCB 관련 소송으로 인해 향후 2년 동안 부채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Solutia가 계속되는 경영손실 및 막대한 현금지출로 유동자산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Solutia는 2003년 7월 합의명령서(Consent Decree)에 서명함으로써 Anniston 지역 개선을 위해 5100만달러를 지불하게 됐으며 부담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Solutia는 2004년 8월까지 신용기관에 3억달러를 지불하고 10월까지 부채 1억5000만달러를, 2005년 2월까지 2억유로(2억2000만달러)를 상환해야 한다. 또한 2005년 말까지 연금제도에 따라 1억7500만달러를 부담해야 하고 2003년 하반기에는 FMC와의 합작기업 Astaris에 3000만-3500만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Citigroup Smith Barney에 따르면, Solutia는 2004년까지 재정압박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부채규모로 볼 때 지역 자활을 위한 부담금을 지불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Standard & Poors는 소송판결이 Solutia의 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Solutia의 현재 신용 등급은 투자등급 이하인 7등급이기 때문에 파산에 이르기 까지 아직 2단계가 더 남아있다. 그러나 아직 저조한 수익 및 현금창출로 차입(Refinancing) 및 자산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 따라서 신용등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수익 및 현금창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10/02>